

LG아트센터 2021년 기획공연

LAST  
YEAR

LG ARTS CENTER  
AT YEOUKSAM

2021



LG Arts Center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인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2000년 역삼동에서 개관한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하며, '동시대를 살면서 꼭 봐야 할 세계적 수준의 작품'만을 소개해 온 LG아트센터가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마지막 기획공연 시즌 CoMPAS21을 선보입니다. CoMPAS21에는 매튜 본의 국내 미공개작 온라인 상영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 상영 및 신유청, 양정웅, 김재덕, 정영두, 이날치,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박규희, 박주원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LG아트센터 2021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21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CoMPAS21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패키지 티켓 오픈 3.23(화) 2pm

개별공연 티켓 오픈 3.30(화) 2pm

# CoMPAS21 PROGRAM

2021.3.5 - 7.15

## FILM

On-line

### 매튜 본 컬렉션

Matthew Bourne Collection

온라인 관람권 10,000 \*네이버TV 후원 라이브

3.5fri - 27sat

매주 금 7:30pm & 토 3pm

Off-line

###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

Avignon Festival Cinema

전석 20,000 \*3층석 15,000

4.28wed - 5.2sun

\*작품별 상영 시간은 공연 소개 페이지 참조

## THEATRE

### 신유청 연출 <그을린 사랑>

'Incendies' directed by Shin U-chung

R 60,000 / S 40,000

5.25tue - 30sun

평일 7pm / 주말 3pm

### 양정웅 연출 <코리올라누스>

'Coriolanus' directed by Yang Jung-ung

R 60,000 / S 40,000

7.3sat - 15thu

평일 7:30pm / 토 5pm / 일 3pm

## DANCE

### 김재덕 안무 <시나위> & <다크니스 폼바>

'Sinawi' & 'Darkness Pomba' by Kim Jae-duk

전석 40,000

5.7fri - 8sat

금 7:30pm / 토 5pm

### 정영두 안무 <제7의 인간>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전석 40,000

6.4fri - 5sat

금 7:30pm / 토 5pm

## MUSIC

### 이날치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수궁가'

LEENALCHI × Ambiguous Dance Company 'Sugungga'

R 60,000 / S 40,000 / A 30,000

6.11fri - 12sat

금 7:30pm / 토 7pm

### 박규희 × 박주원

Guitarists Park Kyu-hee × Park Ju-won

R 60,000 / S 40,000 / A 30,000

6.23wed

7:30pm

# CoMPAS21 할인 안내

개별 공연 티켓 오픈

2021.3.30(화) 2pm

## 조기에매 할인

- 4월 16일(금)까지 개별공연 구매 시 20% 할인  
\*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는 10% 할인

## 청년 할인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만
- 전석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  
(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실버 할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 외 1인까지
- 전석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  
(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대상(예술인 패스 포함),  
각 공연별 차등 할인 제공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할인

-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아트 컬렉션!
- CoMPAS21 전 공연을 모든 '신한카드'로 결제 시  
최대 20% 할인  
(공연별 선착순, 마감 이후에는 10% 할인 적용)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 불가하며,  
상기 할인은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21에만  
해당됩니다. (매튜 본 컬렉션 제외)



# CoMPAS21 패키지 안내

패키지 티켓 오픈

2021.3.23(화) 2pm

## 자유 패키지

2021년 기획공연(총 6편) 대상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성 가능

\* 매튜 본 컬렉션,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 제외 / 동일 공연 중복 선택 불가

- 5편 이상 선택 시 30% 할인 5/24까지 예매 가능
- 3편 이상 선택 시 25% 할인 6/10까지 예매 가능

김재덕 안무 <시나위> & <다크니스 품바>	5.7-8
신유청 연출 <그을린 사랑>	5.25-30
정영두 안무 <제7의 인간>	6.4-5
이날치 ×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수궁가'	6.11-12
박규희 × 박주원	6.23
양정웅 연출 <코리올라누스>	7.3-15

## 아비뇽 시네마 패키지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 공연 5편 중 3편 이상 선택 시 15% 할인

5/1까지 예매 가능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햄릿>	4.28 & 5.1
조엘 폼트라 <골드룸>	5.1 & 5.2
올리비에 피 <리어왕>	4.30 & 5.2
토마스 졸리 <티에스테스>	4.29 & 5.1
로사스 무용단 <체체나>	4.30 & 5.2

\* 3층석 제외



## 패키지 티켓 구매 안내

- CoMPAS21 패키지 티켓은 LG아트센터 웹사이트(PC)와 전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패키지 티켓은 동일 좌석 등급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 구매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패키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각 공연의 날짜 변경은 가능)

\* 패키지는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예매

- 홈페이지 [www.lgart.com](http://www.lgart.com)
- 매표소: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 Tel. 02-2005-0114 E-mail.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CoMPAS21 sponsored by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세요!

###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시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에는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등으로 사용 가능 (10% 초과 할인 구매 시 적립 불가)

###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한 번에!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는 없습니다.

### 3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TMI는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 매튜 본 컬렉션

Matthew Bourne Collection

3.5 fri - 27 sat

every fri 7:30pm, sat 3pm

온라인 관람권 10,000 won \*네이버TV 후원 라이브

\*작품별 상영 일정 및 기타 정보는 하단 스케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과 감동, 재미를 보장하는 댄스 뮤지컬계의 큰 이름

이름만으로도 믿고 보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영국의 안무가 겸 연출가 매튜 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안무,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와 의상으로 관객들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아온 매튜 본의 작품들 중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4편을 LG아트센터가 엄선하여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음악을 바탕으로 배경을 차량정비소로 바꿔 영화 <포스트 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의 내용을 가미하여 색다른 매력과 위트가 폭발하는 에로틱 댄스 스릴러로 변모시킨 <카 맨>,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영국 공군조종사와 불우한 환경의 소녀가 만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발견하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만든 <신데렐라>, 2020년 내한을 예정했다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작품으로 1948년 제작된 동명의 고전 영화를 바탕으로 한 <레드 슈즈>, 가장 최신작으로 베로나 연구소를 바탕으로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잘 알려진 동화나 고전 작품에 새로운 상상력을 가미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 세대가 사랑하는 작품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매튜 본의 작품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매튜 본 컬렉션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두 작품을 번갈아 상영하면서 총 4주간 방영되며, 네이버 TV LG아트센터 채널 '후원 라이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SCHEDULE

---

<b>레드 슈즈</b>	<b>3.5fri 7:30pm / 3.20sat 3pm</b> (100분/12세이상)
<b>카 맨</b>	<b>3.6sat 3pm / 3.19fri 7:30pm</b> (100분/12세이상)
<b>신데렐라</b>	<b>3.13sat 3pm / 3.26fri 7:30pm</b> (110분/12세이상)
<b>로미오와 줄리엣</b>	<b>3.12fri 7:30pm / 3.27sat 3pm</b> (90분/15세이상)

LG Arts Center presents Matthew Bourne's most acclaimed dance productions online every Friday and Saturday throughout March.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last year's Korea tour due to COVID-19, this online program titled "Matthew Bourne Collection" offers a rare opportunity to see four mega-hits by Bourne, which have not yet premiered in Korea. The program includes 'The Red Shoes', 'The Car Man', 'Cinderella', and 'Romeo & Juliet', all of which are highly entertaining and highlight Bourne's triumphant adaptation of the legendary film, opera, fairytale and drama. Please visit LG Arts Center's channel on Naver TV to get access to the live streams.



#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

Avignon Festival Cinema

4.28 wed - 5.2 sun

전석 20,000 won \*3층석 15,000

\*작품별 상영 일정 및 기타 정보는  
하단 스케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upported by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 세계 최고 공연예술축제를 스크린으로 만나다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이 코로나로 발이 묶인 한국 관객들을 위해 LG아트센터 무대로 찾아온다. 올해로 75회를 맞이한 아비뇽 페스티벌은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양대 공연예술축제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 축제로 인해 작은 도시 아비뇽은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예술가와 관객들로 북적이는 예술 도시로 변화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피나 바우쉬, 이보 반 호브,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등 세계적인 거장들도 페스티벌의 상징적인 무대인 아비뇽 교황청의 안뜰 쿠르 도뇌르(Cour d'honneur, 명예의 뜰)에서 꾸준히 신작을 발표해왔다.

LG아트센터는 아비뇽 페스티벌과 함께 한국 관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연 5편을 필름으로 준비했다. 독일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파격적인 <햄릿>, 벨기에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안무가 안느 테레사와 로사스 무용단의 <체세나>를 비롯하여 발표하는 창작극마다 몰리에르상을 휩쓰는 프랑스 극작가이자 대표 연출가인 조엘 폼므라의 <콜드룸>, 프랑스 오데옹 국립극장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아비뇽 페스티벌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연출가 올리비에 피의 <리어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 연극계에 떠오르는 신예 연출가 토마스 졸리의 <티에스테스>까지. 이름 하나만으로도 쟁쟁한 세계 공연예술계 대가들의 작품 5편을 5일간 LG아트센터 무대 위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게 된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사전 공개될 아비뇽 페스티벌 총감독 올리비에 피의 마스터클래스 영상은 아름다운 아비뇽 도시와 극장 곳곳을 배경으로 촬영되어 코로나로 답답해진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 SCHEDULE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햄릿>	4.28wed 7pm 5.1sat 12pm	2시간 25분	12세 이상
조엘 폼므라 연출 <콜드룸>	5.1sat 3:30pm 5.2sun 4pm	2시간 20분	15세 이상
올리비에 피 연출 <리어왕>	4.30fri 4pm 5.2sun 12pm	2시간 45분	19세 이상
토마스 졸리 연출 <티에스테스>	4.29thu 7pm 5.1sat 7pm	2시간 25분	15세 이상
로사스 무용단 <체세나>	4.30fri 7:40pm 5.2sun 7:20pm	1시간 35분	19세 이상

\* 작품에 따라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The Avignon Festival, a world-renowned performing arts festival, is coming to the stage at the LG Arts Center for Korean audiences. The programs include unconventional 'Hamlet' by Thomas Ostermeier, 'Cesena' by Anne Teresa de Keersmaecker and Rosas, 'My Cold Room' by a prominent French playwright and director Joel Pommerat, 'King Lear' by Olivier Py, the director of the Avignon Festival, and finally Thomas Jolly's 'Thyeste'. For five days, you will meet five masterpieces on a large screen set up on the LG Arts Center's stage. Moreover, 13 short videos of Olivier Py's masterclass will be released on Naver TV before the screenings to help your understanding of the Avignon Festival.

## 올리비에 피 연출 <리어왕>

---

배우, 시인, 아비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자 연출가인 올리비에 피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교황청 무대 위로 옮겼다. 프랑스 자유시로 옮겨진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리하게 가족 중심에 숨겨져 있는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보여준다. 오직 진실한 코딜리아의 침묵은 아이러니하게도 리어왕을 광기로 몰아넣고 모두를 파멸시킨다. 늙은 부모와 젊은 상속자, 진실과 거짓, 침묵과 과장, 전쟁과 자기 망상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배우들의 열연은 교황청의 넓은 무대를 모든 유대가 붕괴되는 비극의 장으로 바꿔 놓기에 충분하다.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햄릿>

---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대표작 <햄릿>의 아비뇽 공연을 영상으로 만난다. <인형의 집-노라>, <민중의 적> 그리고 <햄릿> 등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영민한 연출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해온 그의 초기 대표작 <햄릿>. 카메라 클로즈 업을 통해 불안한 내면을 살피고, 무대를 가득 덮은 흙을 활용해 인물들의 심리와 공간을 표현해내 현대 연극사에 손꼽히는 <햄릿>으로 각인되고 있는 명작을 스크린에서 만나보자.

## 토마스 졸리 연출 <티에스테스>

---

이른 나이부터 프랑스 연극계에서 배우와 연출가로 주목 받아온 토마스 졸리를 그의 최신작 <티에스테스>로 국내에 처음 소개한다. 2014년 장장 18시간 러닝 타임의 <헨리 6세>를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발표하며 세계 연극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음해 몰리에르 연출상(퍼블릭씨어터 부문)까지 수상한 그는 4년 후 로마의 극작가 세네카가 쓴 <티에스테스>와 함께 아비뇽 무대로 돌아온다. 토마스 졸리가 직접 연기한 아르테우스와 동생 티에스테스의 유혈이 낭자한 복수극 <티에스테스>는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연출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 안무, 로사스 <체세나>**

---

새벽 4시 반, 교황청 무대 위에 흙으로 그린 커다란 원 앞에서 한 무용수가 크게 호흡하며 막이 오른다. 아비뇽 교황청 무대에서 동트기 전까지 공연된 <체세나>는 해질녘에 시작해서 어둠 속에서 공연을 마치는 안느 테레사의 작품 <En Attendant(Waiting)> 후속편이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아름답고 신비한 음악을 라이브 보컬로 들으며, 천천히 밝아지는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작품이 왜 아비뇽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지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 **조엘 폼므라 작/연출 <콜드룸>**

---

발표하는 창작극마다 몰리에르상을 휩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 조엘 폼므라는 LG아트센터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아티스트이며, 아비뇽 페스티벌과도 인연이 깊다. <콜드룸>은 그의 연출적 미학이 집약된 수작으로 무대와 현실을 잇는 동시대적 주제, 인간 내면의 세밀한 관찰과 이를 표현해내는 언어의 탁월함이 빛나는 작품이다. 몰리에르 극본상과 단체상, 그 해 최고비평가협회 작품상까지 수상한 <콜드룸>은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것은 아니지만 조엘 폼므라의 작품 중 드물게 필름 버전으로 촬영된 작품으로 아비뇽 페스티벌의 적극 추천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 신유청 연출 <그을린 사랑>

'Incendies' directed by Shin U-chung

**5.25 tue - 30 sun**

**weekdays 7pm, weekend 3pm**

**R 60,000 / S 40,000 won**

소요시간: 총 3시간 30분 (중간 휴식 포함)

관람연령: 14세 이상

제작: 마크923



## 2020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수상에 빛나는 화제작

2020년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한국 최고의 연극 작품으로 공인 받은 신유청 연출의 <그을린 사랑>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레바논 태생의 캐나다 작가 겸 연출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희곡 <Incendies(화염)>을 원작으로 하는 <그을린 사랑>은 2010년 드니 빌니브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을린 사랑>은 오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유언에 따라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와 전혀 존재조차 몰랐

던 형제를 찾아 어머니가 그들에게 각기 남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의 흔적을 되짚으려 중동으로 간 남매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진실을 통해 커다란 고통과 마주하게 되고,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쟁, 난민, 억압, 폭력 등 한 여인의 힘겨운 삶 속에 묻혀있던 참담한 사건들과 그 결과로 빚어진 가혹한 운명을 버텨내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선과 악, 사랑과 증오, 고통과 화해, 인간의 의지와 저항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연극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궁극의 맛> 등으로 최근 절정에 오른 연출력을 과시하고 있는 신유청 연출가는 영리한 분석력과 명쾌한 연출로 무대를 밀도 있게 채운다. <그을린 사랑>에서는 시적인 언어와 압도적인 서사 구조의 원작을 깊이 있게 살려내는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3시간 30분에 달하는 긴 러닝 타임 동안 몰입하게 만든다. 2016년 초연 후 많은 이들의 호평 속에 두 차례 재공연 되었던 신유청 연출의 <그을린 사랑>. 이번 공연에는 남명렬, 이주영, 이원석, 이진경, 하준호를 비롯 2020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백석광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LG Arts Center presents 'Incendies (Scorched)', a play directed by Shin U-chung, who won multiple awards including "Best Play" at Baeksang Arts Awards (Korea) in 2020. 'Incendies' is a modern tragedy by Wajdi Mouawad that chronicles the journey of twins, Jeanne and Simon, as they attempt to unravel the mystery of their mother's life. Her death set in motion a series of events that take the twins to the Middle East searching for the stifling truth of their tangled roots. Premiered in 2016, this production will sparkle with minimal staging, excellent acting and distinctive mise-en-scène, which will astonish you with its hidden intensity.**

# 양정웅 연출 <코리올라누스>

'Coriolanus' directed by Yang Jung-ung

**7.3 sat - 15 thu**

**weekdays 7:30pm, sat 5pm, sun 3pm**

**R 60,000 / S 40,000 won**

공동제작: LG아트센터,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 8.20 - 21



## 한국 대표 연출가 양정웅의 5년만의 연극 복귀작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 연출을 맡았던 양정웅이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한다. 개성 넘치는 해석과 독보적인 미장센으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그가 5년 만의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를 구하고 집정관에 선출되었던 용맹한 장군 코리올라누스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방되는 과정, 그 이후에 벌이는 배신과 복수를 그린 작품으로 연극과 영화 등으로 많이 제작되어

왔다. 최근 영국 NT(National Theatre) Live에서 상영했던 버전에서는 톰 히들스턴이 코리올라누스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되었으며, 유명 영화 배우 레이프 파인즈가 감독하고 직접 주연도 맡았던 영화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으로 영국 바비칸 센터와 셰익스피어 글로브 무대를 밟은 국내 유일무이한 연출가 양정웅은 명실공히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평가 받아왔다. 유인촌, 남윤호 출연의 <페리클레스>(2015), 문근영, 박정민 출연의 <로미오와 줄리엣>(2016), 그 밖에 <환>(맥베스 원작), <햄릿>, <십이야> 등 약 7편의 셰익스피어 작품을 연출하면서 고전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상에 대한 깊은 고찰을 매력적인 무대 언어로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 <코리올라누스>는 2009년 <페르 귄트>로 대한민국연극대상의 영광을 함께 만들었던 임일진 무대미술가, 장영규 음악감독 등을 포함한 창작진들이 합류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리올라누스 역에는 <페리클레스>와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뉴질랜드 초청 공연에서 존재감을 확인시켰던 배우 남윤호가 활약할 예정이며, 한동안 우리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 양상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Yang Jung-ung, the director of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8 Pyeong Chang Winter Olympics, is returning to the stage with a tragedy by William Shakespeare, 'Coriolanus'. The play is based on the life of the legendary Roman leader Caius Marcius Coriolanus, who saved Rome and became a consul, but was deported from Rome eventually without popular support. As the only Korean director who staged Shakespeare's plays at the Barbican Centre and the Globe in London, Yang Jung-ung will once again focus on Shakespearean theatricality after a long absence on stage.**



## 김재덕 안무

## &lt;시나위&gt; &amp; &lt;다크니스 품바&gt;

'Sinawi' &amp; 'Darkness Poomba' by Kim Jae-duk

5.7 fri - 8 sat

fri 7:30pm, sat 5pm

전석 40,000 won

소요시간: 총 90분 - &lt;시나위&gt; 15분 &amp; &lt;다크니스 품바&gt; 60분 (중간 휴식 포함)

제작: 모던테이블



**도발적 감각, 독보적 재능!**  
**한국 현대 무용계를 이끄는 에너지**

파격적인 소재와 도발적인 표현방식, 새로운 시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국 현대무용계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만들어온 김재덕이 그의 대표작 두 편 <시나위>와 <다크니스 품바>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김재덕 나이트'의 포문은 솔로작 <시나위>로 연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를 읊조리는 ‘지베리쉬(Jibberish)’에 즉흥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져 비로소 무대에서 완성되는 작품으로 김재덕은 자유로우면서도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무대 위에서 보았던 정형화된 움직임보다는 직관적 움직임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다재다능한 무용수 김재덕의 가늠할 수 없는 매력을 마주할 무대가 될 것이다.

<다크니스 폼바>는 오늘날 그를 있게 한 대표작이자 히트작으로 각설이 타령에서 유래된 ‘폼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폼바 타령’을 뼈대로 현대적인 악기에 판소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에 맞춰 일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젊은 안무가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출력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2006년 초연 이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22개국 38개 도시를 투어하며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아왔다. 세계 무대를 누비며 우리 무용계가 자랑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재덕의 작품세계를 만나보자.

**Kim Jae-duk, who has created a unique position in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field, will be on stage at the LG Arts Center with his two representative pieces ‘Sinawi’ and ‘Darkness Poomba’. His solo piece ‘Sinawi’ is an improvisational work combining dance, music and an unintelligible speech ‘Jibberish’. ‘Darkness Poomba’, which is the most famous work of his company ‘Modern Table’, is a contemporary dance piece that reinterpreted “Poomba”, a Korean folk song. The piece shows unique Asian characteristics with live sounds and dynamic movements of male dancers.**

# 정영두 안무 <제7의 인간>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6.4 fri - 5 sat

fri 7:30pm, sat 5pm

전석 40,000 won

소요시간: 1시간 20분 (중간 휴식 없음)

공동제작: LG아트센터, 고양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공연 6.11 - 12 / 구리아트홀 공연 6.18 - 19



## 진정성있는 움직임으로 무용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정영두의 대표작

2010년 한국춤비평가협회 올해의 무용 작품 베스트 6 선정작이자 “세계 무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안무가, 한국무용계에 오랜만에 완성도 높은 장편이 만들어졌다”(월간 객석), “그동안 축적된 한국 춤연극의 역량이 잘 집약되어 발휘된 훌륭한 성과”(연극평론) 등의 평을 받으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 받았던 정영두의 <제7의 인간>이 2010년 초연 이후 11년 만에 재공연된다.

<제7의 인간>은 유럽 이민 노동자들의 삶을 다큐 형식으로 기록한 존 버거, 장 모로의 동명의 책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고향을 등지고 생존을 위해서 혹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사람들, 낯선 곳에서 자유와 희망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 깊은 반향을 남긴 바 있다.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소요, 더불어 거대한 자본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는 현대 유목민의 삶은 이제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매 작품 확고한 자기 철학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춤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자리매김한 정영두의 깊은 내공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LG Arts Center revives its 2010 creation by choreographer Jung Young-doo. 'A Seventh Man' is a dance piece inspired by the book with the same title (1975) written by John Berger & Jean Mohr, which depicted the lives of migrant workers in Europe in the 1970s. Jung's work focuses on the lives and the emotions of individual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it is not confined to migrant workers in Europe or to a specific period of time. It is a story of displaced peopl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families, about their separations, survival and struggles, freedom and oppression, as well as hope and loneliness. Revisiting the theme and reconstructing the movements, Jung will prove that this work still resonates with our reality even after 11 years.**

# 이날치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수궁가'

LEENALCHI × Ambiguous Dance Company 'Sugungga'

**6.11 fri - 12 sat**

fri 7:30pm, sat 7pm

R 60,000 / S 40,000 / A 30,000 won

소요시간: 1시간 30분 (중간 휴식 없음)



**'범 내려온다'의 주인공!**

**흥과 힘이 터지는 그들이 다시 내려온다**

2020년 한 편의 유튜브 영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 '범 내려온다'의 주인공,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콜라보 무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작년 6월 LG아트센터 러시아워 콘서트를 통해 활약의 신호탄을 터트렸던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1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 정식 콘서트를 선보인다.

대세만 찍는다는 휴대폰 광고를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까지 종횡무진 누비는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그들의 존재를 알리며 또 한번의 광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날치는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3개 부문,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3개 부문 수상,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을 거머쥐며 국악계의 위대한 보물이 되었으며 개성 넘치는 안무와 의상으로 그들의 이름을 각인시킨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소셜 미디어에서 ‘K흥’ 커버댄스 열풍까지 만들어냈다. 이렇듯 이제 그들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이자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두 대세가 1년 만에 갖는 완전체 정식 콘서트로 2021년 이날치가 발매한 싱글 ‘여보나리’를 포함하여 정규 1집 ‘수궁가’의 전곡을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 대세들의 완전체 콘서트를 볼지 모르니 그들의 이름을 믿고 주저없이 흥과 힘이 터지는 그루브에 몸을 실어보자.

**LEENALCHI is an alternative pop band of which video drew hundreds of millions of views across the world. Commission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the video shows the dance group “Ambiguous Dance Company” dancing to LEENALCHI’s song ‘Beom Naeryeo Onda (A Tiger is Coming)’ at tourist spots in Korea and suggests a new meaning of ‘Koreanness’ to people. Consisting of four pansori singers, two bassists, and a drummer, LEENALCHI mesmerizes audiences by harmonizing traditional pansori with modern pop music and became a symbol of “Heung (fun and excitement)” in music. They will play the songs of their first full-length album ‘Sugungga’ and the single album “Yeo-bonari” in this concert. Please enjoy the eccentric and unique sound of LEENALCHI as well as the exciting movements of Ambiguous Dance Company.**

**박규희 × 박주원**

Guitarists Park Kyu-hee × Park Ju-won

**6.23 wed****7:30pm****R 60,000 / S 40,000 / A 30,000 won**

소요시간: 2시간 (중간 휴식 포함)

**클래식 기타와 집시 기타, '젊은 거장'들의 흥미로운 만남**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최고의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각각의 분야에서 정상에 자리에 오르며 '젊은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 두 연주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만나 작은 악기 기타의 위대한 마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박규희는 정확한 기교와 능수능란한 표현력으로 어떠한 레퍼토리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클래식 기타의 독보적인 연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오래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지금까지 알함브라 콩쿨 포함, 아홉 번의 국제 콩쿨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권위 있는 벨기에

프렝탕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성이 이 콩쿠르의 1위를 차지한 것도 박규희가 최초였다. 지금까지 베스트앨범을 포함하여 총 여덟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예술적 성과와 판매량 모두 클래식 기타앨범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파코 데 루치아’로 불리는 박주원은 신들린 듯한 테크닉과 폭넓은 감수성, 보는 이들의 넋을 놓게 만드는 라이브 무대로 대중음악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연주자다.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을 2010, 2012년 2회 연속 수상했으며,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리더스폴에서 2010, 2011년 2년 연속 최우수 기타리스트로 뽑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곡을 직접 작곡, 탁월한 송라이터로서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2020년 각각 기념 공연을 펼친 두 사람은 이번 공연에서 각자의 솔로 연주는 물론, 두 개의 기타로만 이루어지는 듀오 무대, 밴드 및 게스트와 함께하는 레퍼토리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Park Kyu-hee and Park Ju-won, the top guitarists in Korea, are brough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since their debut to present the great magic of guitar. Called “Paco de Lucía of Korea”, Park Ju-won has won the Korean Music Awards for ‘Best Jazz & Crossover’ twice for his dazzling technique and outstanding live performances, and was selected as the Best Guitarist by a jazz magazine “Jazz People”. Park Kyu-hee is an unrivaled classical guitar player with precise technique and skillful expression, and the first female and the first Asian to win the first prize in “Printemps de la Guitare”, a prestigi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Belgium. The two guitarists will present a variety of works including their solos and duo performances as well as a repertoire collaborating with the band and the guests.**